

# K-IFRS 도입 시점의 전환조정이 이후 기간의 미래이익 예측력에 미치는 영향

지상현\*, 곽영민\*\*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조교수\*,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K-IFRS Reconciliations and Predicting Future Earnings

Sang-Hyun Ji\*, Young-Min Kwak\*\*

Division of Business & Commerce, Baekseok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Uls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최초 도입시점에 발생한 회계수치의 전환조정이 그 이후 기간에 K-IFRS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총 2,557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전환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보고이익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이익예측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K-IFRS 도입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수치를 나타낸 기업집단에서 그 이후 K-IFRS에 근거하여 보고한 이익의 차기 이익 예측능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였을 경우 향후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능력 즉,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조정, 보고이익, 이익예측력, 회계적 재량권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edict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from mandatory K-IFRS adoption using the K-IFRS reconciliations information. We use the sample of 2,557 firm-year Korea listed companies belonging to non-financial corporate sector during 2010-2016.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K-IFRS reconciliation would improve or reduce the predicting power for future earnings after K-IFRS adopti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reconciliation information from discretionary judgement tend to reduce the predicting power of K-IFRS based accounting earnings for future earnings. This result indicates that managers are likely to use the adjustments process to reconcile K-GAAP accounting numbers with corresponding K-IFRS as means to realize the various private utilit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by suggesting the need for more rigid screening schemes for the K-IFRS reconciliation process and also for adequate measures to be taken to ensure that the interests of the outside investors are properly protected.

**Key Words** : K-IFRS, Reconciliations, Accounting earnings, Predicting power, Discretionary judgement

\* 이 논문은 2016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ceived 2 November 2017, Revised 1 Dec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Young-Min Kwak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Ulsan University)  
Email: ymkwak@usla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준거회계기준 변경과정에서 수반된 회계수치의 조정액이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는가를 미래이익의 예측력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은 우리나라는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회계기준으로 거론되어 온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을 2011년부터 준거회계기준으로 의무 도입하였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저하 등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K-IFRS 제1101호에서는 2010년 재무제표를 K-GAAP과 K-IFRS에 근거하여 모두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의 차이금액은 경영성과와 같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과는 무관하며 오직 기준 변경에 따른 회계정책 및 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 기초할 때 K-IFRS에 근거한 최초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과 함께 경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전환조정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K-IFRS에 근거한 최초 재무제표에는 기업 실체에 대한 진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준 변경에 따른 경영자의 회계정책 선택 효과와 추정 변경효과가 모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K-IFRS에 따른 재무제표의 유용성은 준거회계기준의 변경과정에서 경영자가 회계선택을 어떠한 목적에서 수행하였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는 특히, K-IFRS가 과거 K-GAAP과 달리 원칙중심을 표방하여 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회계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1, 2, 3].

예를 들어, 경영자가 K-IFRS 도입에 따라 확대된 회계적 재량권을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할 경우 전환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회계선택을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전환조정 정보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영자가 사적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준거회계기준의 변경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에 기초하여 회계선택을 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는

전환조정 정보가 왜곡된 회계수치를 반영함으로써 인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준거회계기준의 변경과정에서 관찰되는 보고이익의 전환조정액이 K-IFRS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의 미래이익에 대해 예측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그러한 전환조정액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요소와 경영자의 자의적 회계선택에 따른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곽영민과 백정환(2016)의 연구를 인용하여 재량적으로 전환조정 손익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식별한 후 이러한 집단에서의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차별적인 형태를 보이는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둔다[4]. 또, 전환조정액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2단계 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 시점의 전환조정액 정보의 유용성을 검토함을 통해 현행 준거회계기준 체계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이 기준 도입 시점의 경영자의 회계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즉, 단순히 준거회계기준 변경 전·후의 회계정보 유용성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는 K-IFRS 도입 초기 경영자의 회계선택에 따라 K-IFRS 도입 후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전환조정액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한 기존 연구의 결과가 재량적 전환조정이 미래이익 예측력에 미치는 영향 즉,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 중 하나인 목적적합성 초래하는 영향에 의해 견인되었음을 입증하는 등 관련 연구를 확장하는 의미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가설을 도출하며 3장에서는 연구방법과 표본, 그리고 주요변수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회계기준 변경과정에서 관찰되는 전환조정액을 주요

검증변수로 활용한 연구는 크게 전환조정액의 회계적 유용성을 검증한 연구와 전환조정액이 경영자에 의해 재량적으로 조정되고 있는가를 검증한 연구로 양분할 수 있다. 먼저, 전환조정액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본과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결과가 혼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일부의 연구들에서는 전환조정액 정보가 추가적인 가치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는[5, 6]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가치관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7]. 또, 몇몇 연구에서는 전환조정 정보가 가치관련성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거나[8, 9] 혹은 증분 가치관련성이 순자산 전환정보와 순이익 전환정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10].

다음으로, 전환조정이 경영자의 자의적 회계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검증한 연구로 Capkun et al.(2008)은 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전환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11]. 이와 유사하게 최성호 등(2011)은 K-IFRS 조기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K-GAAP 상 ROA가 낮은 기업일수록 전환조정을 통해 K-IFRS 상 이익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2]. 또, 일부 연구에서는 경영자 보상이 보고이익에 연동되어 있을 경우 경영자가 보고이익의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회계기준의 변경과정에 개입하여 전환조정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13].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의 변경과정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4, 15].

이와 같이 회계기준의 변경과정에 경영자가 사적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환조정액에서 경영자의 자의적 개입 여부를 식별하지 않고 전환조정액 총액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할 경우 관련 분석결과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전환조정액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한 기존 연구의 결과가 아직까지 혼재되어 있는 것은 전환조정액의 유용성을 검증함에 있어 전환조정액에 내포되어 있는 경영자의 재량적 조정 요소와 순수한 기준변화에 따른 요소를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서 건인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환조정액의 구성요소를 회계기준 변경효과와 경영자의 자의적 회계선택에 따른 요소로 식별하여 전환조정액의 정보유용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특히, 상술한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전환조정액 중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건인된 부분은 분명 K-IFRS에 따른 보고이익을 기업의 경제적 실질과 다르게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액은 보고이익이 지나는 미래 이익의 예측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환조정액 중 경영자의 재량 요소가 경영자의 합리적 회계선택 즉, 기업실체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인된 것이라면, 그러한 조정액은 보고이익이 지나는 미래 이익의 예측력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량적 전환조정액의 정보효과를 사전에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여 상술한 논의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K-IFRS 도입 과정에서 수반된 재량적 전환조정액은 보고이익이 지나는 미래 이익의 예측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3. 연구방법과 표본

#### 3.1 연구방법

##### 3.1.1 재량적 전환조정의 식별

본 연구에서는 K-IFRS로 준거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환조정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와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의해 건인된 요소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0년 K-GAAP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과 K-IFRS 제1101호의 요구에 따라 K-IFRS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2010년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통해 전환조정 손익 총액(NI\_Diff)을 산출한다. 이후 광영민과 백정환(2016)의 연구를 인용하여 전환조정 손익을 재량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식별한다. 구체적으로, NI\_Diff의 절댓값이 소속 산업의 중위수보다 클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지니는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이를 경영자가 회계적 재량권을 이용하여 전환조정 손익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 대한 대응변수(DNI\_Diff)로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회계기준의 변경효과가 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효과를 고려할 경우 전환조정 손익에서 비재량적 요소가

사전에 통제될 수 있다는 연구들에 기초한다[4, 16, 17]. 상술한 재량적 전환조정 의심집단의 식별을 위한 변수 정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DNL\_Diff: 전환조정 손익을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순이익의 전환조정액의 절댓값이 소속 산업의 중위수보다 크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 3.1.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K-GAAP에서 K-IFRS로 준거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자의 재량적 전환조정 여부가 K-IFRS에 따라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미래이익예측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검증모형은 아래와 같다.

$$NI_{t+1} = \alpha_0 + \alpha_1 NI_t + \alpha_2 DNL\_Diff + \alpha_3 NI_t \times DNL\_Diff + \varepsilon_t$$

여기서,

$NI_{t+1}$  = 차기 순이익 / 당기총자산

$NI_t$  = 당기 순이익 / 전기 총자산

DNL\_Diff = 재량적 전환조정 의심집단을 식별하는 더미변수

모형의 종속변수는 차기 이익이며 주요 검증변수는 당기순이익과 전환조정을 재량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 변수의 교차항이다. 만약, 경영자가 K-IFRS 도입 시점에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회계기준의 전환과정에 개입하여 하여 회계선택을 하였다면 K-IFRS 적용 최초 재무제표의 순이익 정보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효과가 소멸될 때까지 당기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력은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 식의 주 검증변수의 회귀계수인  $\alpha_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FRS로 전환과정에서 수반되는 회계선택이 보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에 근거하였다면, 재량적 회계선택을 수행한 기업집단에서 당기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력은 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alpha_3$

는 유의미한 양(+)의 값을 지닐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 3.2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지속적으로 상장된 기업 중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 때 실증분석을 위해 필요한 2010년 말 기준 전환조정액 정보는 Fn-Guide에서, 그 외의 재무정보는 TS-2000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였다<sup>1)</sup>.

- (1)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비금융기업
- (2) K-IFRS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은 기업
- (3) 자본잠식 기업
- (4)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입수가 가능한 기업
- (5) 2010년의 연도별-산업별 관찰치 수가 10건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기업

표본선정 기준 (1)~(3)은 표본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4)는 자료의 입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표본 선정기준에 포함하였다. 또, (5)는 본 연구의 주요 검증변수인 재량적 전환조정 의심집단의 구분이 2010년 산업별 중위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 내 충분한 표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에 기초한 변수정의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선정기준에 포함하였다. 이 때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 중분류에 따른다. 끝으로, 극단치가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 값이 평균±(3표준편차)을 벗어나면 표본에서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된 최종 17개 산업의 2,557개 기업-연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 4. 실증분석결과

###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요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지만, K-GAAP과 K-IFRS 간에 연결범위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여 2010년 두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4].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구한 전환조정액과 보고이익 등의 재무제표 수치를 분석에 이용한다.

<Table 1>에서는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와 검증변수에 모두 활용되는 보고이익의 경우 평균과 중위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표준편차 또한 비교적 작은 값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또, 주요 검증변수인 DNL\_Diff의 평균이 0.483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재량적 전환조정 여부를 소속 산업의 전환조정액 중위수를 기준으로 판별하고 있음에 따른 결과이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Min	Q1	Med	Q3	Max	Std.
NI	0.015	-0.424	0.000	0.019	0.052	0.215	0.149
DNL_Diff	0.483	0	0	0	1	1	0.500

다음으로 <Table 2>에서는 주요 검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당기이익( $NI_t$ ) 그리고 K-IFRS 도입 시점에 재량적으로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의 당기이익( $NI_t \times DNL\_Diff$ ) 모두 차기이익( $NI_{t+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상관관계의 크기는 재량적으로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 도입 후 작성된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익의 미래 이익 예측력이 보다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Table 2> Pearson Correlation Statistics

	(1) $NI_{t+1}$	(2) $NI_t$	(3) $DNL\_Diff$	(4) $NI_t \times DNL\_Diff$
(1)		0.51***	-0.02	0.38***
(2)			0.14*	0.27**
(3)				0.09
(4)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at 1%, 5%, 10%, respectively.

#### 4.2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Table 3>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다변량 분석체계에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재량

적 회계선택을 통해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 관한 더미변수와 당기순손익의 교차항이 차기순손익과 유의한 음(-)의 기울기 계수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K-IFRS 도입 과정에서 동종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전환조정액을 인식한 기업에서 K-IFRS 도입 이후 보고된 순손익의 미래이익 예측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K-IFRS로의 전환과정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액은 K-IFRS 적용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반된 결과물이기 보다는 경영자가 사적이득을 위해 자의적으로 회계선택을 수행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즉, <Table 3>의 분석결과는 준거회계기준의 변경과정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 손익은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결과물이며 이러한 경향을 가진 기업들이 작성한 K-IFRS 적용 재무제표 상 보고이익은 보다 낮은 미래이익예측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한다.

<Table 3> Regression Results of Abnormal reconciliations information on Future Earnings

Variables	Coef.	t-value
Intercept	0.242	2.10 *
$NI_t$	0.734	11.58 ***
DNL_Diff	-0.043	-0.42
$NI_t \times DNL\_Diff$	-0.293	-2.43 ***
No. of Obs.		2,557
Adj R-square		0.387***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at 1%, 5%, 10%, respectively.

그런데, 상술한 결과는 K-IFRS 도입 시점의 전환조정 효과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입 초기 연도의 효과에 의해 크게 견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의 결과가 특정 연도에 의해 견인된 제한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Table 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 표본 기간에 걸쳐 재량적으로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순이익의 교차항에 대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앞선 분석결과가 K-IFRS 도입 초기에만 관찰되는 제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회계전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집단의 경우 최근까지도 재무제표 상 보고이익의 이익예측력이 저하되는 다시 말해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Abnormal reconciliations information on Future Earnings using annual sample

Variables	2011 Coef. (t-stat.)	2012 Coef. (t-stat.)	2013 Coef. (t-stat.)	2014 Coef. (t-stat.)	2015 Coef. (t-stat.)
Intercept	0.28 (1.13)	0.42* (1.93)	0.12 (1.42)	0.60* (2.01)	0.82*** (2.91)
NI <sub>t</sub>	0.86*** (9.17)	0.64*** (7.41)	0.73*** (8.16)	0.77*** (7.29)	0.81*** (8.52)
DNI_Diff	0.07 (0.18)	0.03 (0.09)	0.12 (0.11)	0.10 (0.13)	0.09 (0.24)
NI <sub>t</sub> ×DNI_Diff	-0.32*** (-2.63)	-0.27*** (-2.81)	-0.19*** (-2.39)	-0.14** (-2.20)	-0.11* (-1.81)
No. of Obs.	504	494	511	523	525
Adj R-square	0.35	0.31	0.39	0.41	0.43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at 1%, 5%, 10%, respectively.

### 4.3 강건성 검증

본 소절에서는 선행연구[18, 1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아래와 같은 2단계 방정식 추정함을 통해 앞선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1방정식:

$$DNI\_Diff = \beta_0 + \beta_1 SIZE + \beta_2 ROE + \beta_3 LEV + \beta_4 PPE\&I + \beta_5 SEC + \Sigma IND$$

제2방정식:

$$NI_{t+1} = \alpha_0 + \alpha_1 NI_t + \alpha_2 DNI\_Diff + \alpha_3 NI_t \times DNI\_Diff + \alpha_4 IMR + \varepsilon_t$$

이는 본 연구의 주요검증변수인 DNI\_Diff가 외생변수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구성과 재무성과 등에 따라 견인된 내생변수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내생성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분석결과에 편의(bias)가 초래될

수 있음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식에서는 재량적 전환조정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여 재량적 전환조정의 동인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추정된 계수를 기반으로 하여 표본기업에 대한 IMR(Inverse Mills' Ratio)을 도출한다. 이 때 전환조정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 동인 변수로는 곽영민과 백정한(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2010년 K-GAAP에 따른 기업규모(SIZE=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자기자본비율(ROE=순이익 / 자기자본의 장부가), 부채비율(LEV=부채총액 / 자기자본의 장부가), 유무형자산의 비중(PPE&I=유·무형자산 총액 / 자산총액), 종속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SEC=종속 및 관계기업 주식의 장부가 / 자산총액)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2단계 식에서는 1단계에서 구한 IMR를 이익예측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재량적 전환조정 여부에 따라 K-IFRS에 근거한 보고이익의 이익예측력이 어떠한 차별적 행태를 보이는가를 재검증한다.

<Table 5> Summary of Estimation Results from 2Stage Model

Variables	Coef.	t-value
Intercept	0.138	1.23
NI <sub>t</sub>	0.629	10.06 ***
DNI_Diff	-0.008	-0.63
NI <sub>t</sub> ×DNI_Diff	-0.148	-2.25 **
IMR	0.377	2.56 ***
No. of Obs.		2,557
Adj R-square		0.328***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s at 1%, 5%, 10%, respectively.

이러한 2단계 분석을 통한 주요 분석결과 즉, 제2방정식의 추정 결과는 <Table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검증변수인 NI<sub>t</sub>×DNI\_Diff의 회귀계수가 음(-)의 차별적 기울기 계수를 지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앞선 분석결과 즉, 경영자가 K-IFRS 도입 시점에 재량적으로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 상 보고이익이 지니는 미래이익 예측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다소 저하되고 있는 현상이 재량적 전환조정 변수가 지닐 수 있는 내생성을 통제 한 이후에도 다시금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IMR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전환조정액을 다루는 연구에

서 전환조정액이 기업규모나 자산구성 등에 따라 내생적으로 견인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5. 결론

본 연구는 K-GAAP에서 K-IFRS로 준거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 의해 수반된 회계변경의 효과 즉, 전환조정액이 K-IFRS 체제에서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지속적으로 상장된 2,55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준거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산업효과를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전환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을 식별한 후 동 집단의 보고이익이 지나는 미래이익 예측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어떠한 차별적 행태를 보이는가를 검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이익예측모형을 추정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관심변수인 전환조정을 재량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 도입 이후 보고이익이 지나는 미래이익에 대한 예측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로 준거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재무제표의 수치가 왜곡되고 그러한 왜곡표시가 K-IFRS 도입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력 즉,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적 특성 중 하나인 목적적합성이 약화된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연도별로 이익예측모형을 추정한 결과 표본기간 전체에 걸쳐 상술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K-IFRS 도입시점의 경영자에 의한 왜곡표시가 K-IFRS 도입 초기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재무제표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전환조정 수준 변수가 지닐 수 있는 잠재적인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2단계 방정식을 통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앞선 연구의 결과가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의무 도입한 K-IFRS의 도입효과가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K-IFRS 도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의 우수성과 더불어 경영자가 K-IFRS 체제에서 확대된 회계적 재량권을 기업실체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잠재적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K-IFRS 도입 과정에서 수반된 경영자의 재량적 전환조정 행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한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K-IFRS 도입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있어 전환조정의 재량성 여부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재량적 전환조정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 저하가 재량적 전환조정으로 인하여 보고이익의 예측력 경감 즉, 목적적합성의 악화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순이익 전환조정이 값이 산업중위수를 초과할 경우 재량적 전환조정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재량적 전환조정의 경우 순이익 효과뿐만 아니라 순자산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환조정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 효과를 적절히 식별하지 못함에 따라 분석결과의 의미가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기간을 2015년까지로 삼고 있어 K-IFRS 도입과정에서의 재량적 전환조정이 어느 정도의 회계기간까지 이익 예측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식별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량적 전환조정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을 보다 정밀히 설계하고 K-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가 충분히 축적된 다음 회계기준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재량적 전환조정이 K-IFRS 체계의 회계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6 Research Fund of Ulsan University.

## REFERENCES

- [1] G. R. Lee, "A Study on Improving Transparency in Accounting for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Companie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2, pp.257-264, 2013.
- [2] H. J. Moon, "A Comparison of Earnings Quality Between KOSPI Firms and KOSDAQ Firm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5, No. 1, pp.129-141, 2017.
- [3] S. J. Park, and K. I. Han,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n legacy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financial institu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8, No. 3, pp.143-154, 2010.
- [4] Y. M. Kwak, and J. H. Baek, "K-IFRS reconciliations and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Accounting Information Review*, Vol. 34, No. 1, pp.93-123, 2016.
- [5] J. Horton, G. Serafeim, "Market reaction to and valuation of IFRS reconciliation adjustments: First evidence from the UK",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 15, No. 4, pp.725-751, 2010.
- [6] S. Wang, M. Welker, "Timing equity issuance in response to information asymmetry arising from IFRS adoption in Australia and Europ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9 No. 1, pp.257-307, 2011.
- [7] J. H. Choi, "The adoption of IFRS and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38, No. 1, pp.391-424, 2013.
- [8] H. B. Christensen, E. Lee, M. Walker, "Do IFRS reconciliations convey information? The effect of debt contrac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7, No. 5, pp.1167-1199, 2009.
- [9] Y. Kim, H. Li, S. Li, "Does eliminating the Form 20-F reconciliation from IFRS to U.S. GAAP have capital market consequen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53, pp.249-270, 2012.
- [10] S. H. Choi, I. S. Kim, K. Choi, "The effect of mandatory K-IFRS adoption: Value relevance and market reaction to K-IFRS reconciliation adjustments",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38, No. 4, pp.333-367, 2013.
- [11] V. Capkun, A. C. Jeny, T. Jeanjean, L. A. Weiss, "Earnings management and value relevance during the mandatory transition from Local GAAPs to IFRS in Europe", Working Paper, 2008.
- [12] S. H. Choi, I. S. Kim, K. Choi, "The early adoption of K-IFRS and its effect on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Korean Accounting Review*, Vol. 36, No. 2, pp.1-30, 2011.
- [13] G. Voulgaris, K. Stathopoulos, M. Walker, "IFRS and the use of accounting-based performance measures in executive pay", Working Paper, 2011.
- [14] K. Ramanna, R. Watts, "Evidence on the use of unverifiable estimates in required goodwill impairment",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 17, pp.749-780, 2012.
- [15] B. Garcia-Osma, P. F. Pope, "Strategic balance sheet adjustments under first-time IFRS adoption and the consequences for earnings quality", Working Paper, 2011.
- [16] A. Christie, L. Zimmerman, "Efficient and opportunistic choices of accounting procedures: Corporate control contests", *The Accounting Review*, Vol. 69, No. 4, pp.539-566, 1994.
- [17] J. Donovan, R. Frankel, X. Marti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creditor recovery rate", *The Accounting Review*, Vol. 90, No. 6, pp.2267-2303, 2015.
- [18] J. J. Heckman,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Vol. 47, pp.153-161, 1979.
- [19] L. F. Lee,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in binary choice models with limited(censor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Vol. 47, pp.977-996, 1979.



지 상 현(Ji, Sang Hyun)



- 2013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재무, 세무회계.
- E-Mail : shji@bu.ac.kr

곽 영 민(Kwak, Young Min)



- 2011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박사)
- 2011년 9월 ~ 2014년 2월 :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울산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 E-Mail : ymkwakr@ulsan.ac.kr